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아동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께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가 발생한 2014년 3월 이후 약 1년 6개월만인 2015년 11월 7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위생시설 및 의료시설 부족, 영양부족으로 인한 낮은 면역력, 보건 의식 부족, 독특한 장례문화 등의 원인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 내에서 에볼라 확진, 추정, 의심환자로 1만3500여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사망자는 4,000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아동들은 부모 모두가 사망하여 에볼라 고아가 되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한 전쟁고아는 이웃 또는 친자들이 돌보아주었던 반면 에볼라로 인해 고아가 된 아동들은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안타깝고 참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4년 3월 학기를 마치지 못한 채 수업이 중단되었으며,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에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무기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UN 등 국제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2015년 4월부터 감염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학교들은 문을 열기 시작했으나 등교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종식 선언 이후인 2016년 1월 5일, 마침내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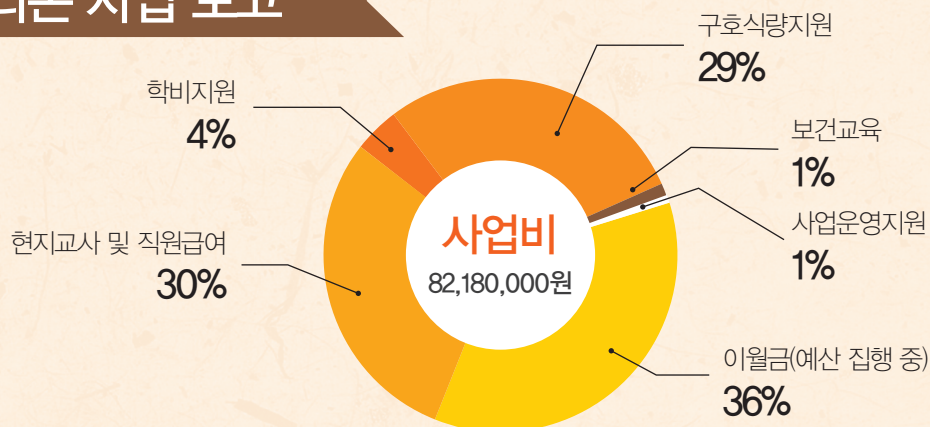
2014년 8월 현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시에라리온 사업장을 담당하던 이순복 프로젝트 매니저와 파견 직원은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몸은 현지에서 떠나왔지만 현지 직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현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나갔습니다. 현지 직원과 교사들은 아동의 집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

고 에볼라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가루우유를 전달해 아동의 영양 섭취를 도왔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이후에는 800여명의 아동에게 교육지원과 함께 주 2~3회 밥 또는 빵을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볼라로 고아가 된 150여명의 아동에게는 매일 한 끼의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자신을 보살펴주는 이웃 또는 친척을 위해 반 이상을 남겨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계획하여 실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식사 및 간식 지원을 유지하고, 학용품을 지원하며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악과 미술 등의 예체능 활동을 시작할 계획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준비해오던 도서관 개관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책을 구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현지 직원과 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동들을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아동의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라리온과 아동에게 보내주시는 회원님의 지지와 응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덕분에 오늘도 시에라리온 아동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혼란과 아픔의 시간을 보낸 시에라리온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2016년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시에라리온 사업 보고



* 에볼라 기간: 2014년 8월 ~ 2015년 10월



에볼라 고아



에볼라 고아 식사지원



영양우유 제공